

조직개편·자문단 구성...“소비자 보호에 올인!”

‘6대 판매 규제’ 모든 금융상품 확대
하나,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 신설
농협, 금소법부문장에 부행장 선임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사진은 NH농협은행 지점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 사진제공 | NH농협은행

은행권이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개편 및 자문기구 구성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했다.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과 권유 직원에게 1억 원 과태료 부과 등 강한 제재를 담은 만큼 은행권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먼저 조직개편에 적극 나섰다. 하나는

행은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하고 그룹장으로 이인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를 영입했다. 기존 은

행 리스크관리는 자산건전성 유지 및 위험 대비 적절한 수익률 확보 등 은행 중심의 위험 관리였다. 하지만 신설 그룹

은 고객의 자산규모, 위험 선호도, 수익률 등 고객 입장에서 최적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을 돕는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수장에 부행장급 인사를 선임하는 등 조직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NH농협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에 이수경 부행장을, IBK기업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에 김은희 부행장을 선임한 것이 그 사례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신한 옴부즈만’을 운영 중이다.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5인과 투자상품 전문업체 1곳을 위원으로 구성해 은행 정책을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검증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B국민은행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보호권익강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소비자보호 제도화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신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향성 검토 등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날씨와 생활

19일(화)

서울	0/0	인천	0/0	수원	0/0
	-4 3		-2 3		-4 3
춘천	0/0	강릉	0/0	청주	0/0
	-7 2		-2 5		-2 5
대전	0/0	전주	0/0	광주	0/0
	-3 5		-2 6		-2 7
대구	0/0	울산	0/0	부산	0/0
	-4 5		-3 7		-2 8
창원	0/0	제주	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4 7		4 10	날씨	최저 최고기온°C

☀ 해돋이 07:45 해질 17:40 🌙 달돋이 10:58 달질 22:49

산 날씨

북한산		-15/-2	내장산		-10/0
설악산		-10/0	무등산		-9/4
오대산		-14/-1	주왕산		-14/1
속리산		-14/0	지리산		-7/7
계룡산		-14/0	한라산		1/10

바다 날씨

인천충도		-12/-3	안면도 꽃지		-13/-1
제주도		-13/-3	변산반도		-9/0
경포대		-9/2	거문도		-7/6
속초		-11/0	해운대		-6/5
대전		-14/-1	제주도		2/6

미세먼지

서울	21	좋음	대전	17	좋음
부산	22	좋음	경기	23	좋음
대구	22	좋음	강원	19	좋음
인천	19	좋음	전북	21	좋음
광주	25	좋음	제주	23	좋음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499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성춘 편집국장 연재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사모초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민

경제산업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

“생태교육·체험 가능”...한화 아쿠아플라넷 광고 오픈

수조 규모 2000톤...210여종 해양생물

한화호텔&리조트는 수원컨벤션센터 단지에 아쿠아플라넷 광고(사진)를 19일 오픈한다. 서울, 일산, 여수, 제주에 이은 다섯 번째 아쿠아플라넷이다. 수원컨벤션센터는 경기 남부 유일의 대형 컨벤션센터로 갖춘 MICE 단지로 '제2의 코엑스'로 기대를 모으는 곳이다.

아쿠아플라넷 광고는 연면적 6500㎡, 수조 규모 2000톤으로 샌드타이거사크 등 210여 종, 3만 여 마리의 해양 생물을 갖출

다. 생태교육 및 체험도 가능하도록 생물 먹이 조리실을 오픈키친 형태로 꾸몄고, 해파리를 연구하고 배우는 젤리피시랩도 공개로 운영한다.

김경수 아쿠아플라넷 운영총괄 상무는 “아쿠아플라넷 광고를 통해 수원이 MICE 산업단지로 변모하는 초석이자, 경기 남부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일반관광객이 볼 수 있게 내부를 공개한 아쿠아플라넷 광고의 해양생물 생명유지장치. 사진제공 | 한화호텔&리조트

합병 앞둔 GS리테일·GS샵, 설 명절 공동 마케팅 진행

7월 합병을 앞둔 GS리테일과 GS샵이 2월 4일까지 'GS와 함께하는 2021 위대한 설'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GS25(편의점), GS더프렌즈(슈퍼마켓), GS샵(TV홈쇼핑·온라인몰) 등 전 유통 채널을 통해 행사상품을 구매할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황금소코인을 증정한다. 황금소코인은 11.25g의 순금 주화에 소 캐릭터와 북주머니를 새겼다. 또 GS리테일 설 선물 구매 고객 중

2021명에게 GS샵 5000원 모바일상품권을, GS샵 모바일 앱에서 2회 이상, 7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GS리테일 5000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교차 구매 경험을 제공해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조광현 GS리테일 전략마케팅팀 부장은 “7월 통합을 앞둔 양사 2600만 명 고객이 공동 마케팅을 통해 큰 만족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에어부산, 설 연휴 48편 임시항공편 투입
에어부산은 설 연휴 기간에 국내선 전 노선 대상으로 48편의 임시항공편을 투입한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김포-부산 18편, 김포-울산 6편, 김포-제주 12편, 부산-제주 6편, 울산-제주 6편 등 5개

노선에 48편의 임시항공편을 통해 8910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한다. 역귀성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최대 95% 할인된 운임을 제공하는 특가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18일 오전 11시부터 1월 31일까지, 탑승 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김재범 기자

경제현장.jpg

“조리명장이 만든 반찬 맛보세요”



롯데백화점이 21일까지 서울 잠실점 지하 1층에서 마스터쿡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마스터쿡은 대한민국 조리명장이 직접 만든 프리미엄 즉석 반찬 전문점이다. 까르보나라 포크 커틀릿, 적도미 품은 감자, 아보카도 스프 등이 대표 상품이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롯데백화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19일(화) 음력: 12월 7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구름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여우비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먹구름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파도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쾌청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여명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때는 이루어진다. 오늘은 포일로서 토끼의 날이다. 쥐는 찬 물이요 토끼는 바람이니 북풍, 냉풍에 파도가 일게 되니 풍파이다.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영똥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참고 견디면 나아지겠다. 소파쟁은 머리를 써서 기발한 모책으로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당할 수도 있는 날이다.	이월 저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등은 금물이며 이사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오늘은 고독하며, 반복되는 일로 피곤한 날이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쟁자들과 싸우지 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을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토끼띠가 토끼날을 만났으니 자중지란을 조심해야 한다. 우왕좌왕하기 쉽고 한 가지 일에 매진 못하고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하는 날이다.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다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페이스대로 나아가라. 오늘은 육해살일이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지름길을 찾고 싶은 날이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었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오늘 뱀띠쟁의 마음은 큰 뜻을 가지고 교묘한 아이디어로 실력자를 움직여 실리를 챙기려 하는 날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무지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노을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맑음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해·번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싸늘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쾌청
친구나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펴라. 오늘은 토끼날이다. 매사에 급히 서두르다 실패할 수 있는 날이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매사에 임하라.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오늘은 토끼의 날이다. 양파쟁이 토끼를 만나면 처음에는 좋으나 중도에 항상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오늘은 토끼날이다. 원숭이띠는 헬기왕성하여 무언가 시작하려는 기운이 강한데 토끼는 브레이크를 거는 형상이다.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고 수입을 늘리려 하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오늘은 토끼날로 재살일이다. 닭은 토끼를 만나면 부딪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돼지띠를 만나 자문을 구하면 좋겠다.	매사가 풍선처럼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듯 하지만 그 풍선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급기야는 터지고 만다. 하는 일이 위축될 수 있겠고 자금난에도 봉착할 수 있어 수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겠다. 오늘은 토끼날이다. 개는 화개 즉, 자신의 재능을 가리고 덮어 두지 않게 하려는 기운이 강하다. 음악이나 영화감상을 통한 휴식이 도움 되겠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강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자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운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돼지띠는 지살로서 움직이려는 기질이 강한데 오늘 토끼날은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형상이다. 출장근무가 잘 성사되는 날이 되겠다.